

토지주택박물관대학
다도과정 제16기

중국차문화의 형성과 발전

■ 김 영 숙 중국다예연구중심소장 ■





중국차문화의 형성과 발전

김 영 숙 중국다예연구중심소장

○ 차문화(茶文化)의 함의(含意)

- (1) 광의(廣義) 차의 자연과학(自然科學)과 인문과학(人文科學) 두 개면을 포괄하는데, 인류사회의 역사 실천 과정에서 창조된 차와 관련된 물질적(物質的) 부(富)와 정신적(精神的) 부(富)의 총화(總和)를 가리킨다.
- (2) 협의(狹義) 차의 인문과학에 치우치며 주요하게 정신과 사회에 대한 차의 기능(효용)을 가리킨다. 차의 자연과학이 독립적 체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차문화란 일반적으로 인문과학을 가리킨다.

○ 차문화의 특징

차문화는 일종에 “중개문화(仲介文化)”이며 차를 물질과 문화의 캐리어로 삼아 차의 정신과 사회 기능을 완성한다. 중국 속담에 “장작,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와 “거문고, 바둑, 서예, 그림, 시, 노래, 차”란 말이 있는데 이는 곧 차문화가 물질적 문화(物質的 文化)와 정신적 문화(精神的 文化) 사이에 있는 문화(文化)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삼국이전(三國以前)의 차와 관련된 기록

중국은 차의 원산지이며 또한 차를 최초로 발견, 이용, 가공, 전파한 나라로서 흔히 “차의 조국”, “차의 고향”이라 불린다. 고서에 보면 차와 관련된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는

데 차의 역사는 삼황오제시대(三皇五帝時代)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신농이 백가지 풀을 맛보다가 하루는 72가지 독이 몸에 퍼져 씬바귀를 먹어서야 비로소 나왔다. 씬바귀(荼)란 차를 가리킨다.”라고 전해진다. 다성(茶聖) 육우(陸羽)가 <다경·칠지사(茶經·七之事)> 1절 시작에 “삼황(三皇)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라고 쓰고 있으므로 많은 서적 중에서도 차의 발견 시간을 기원전 2737~2697년으로 하고 있다. 중국 중원에는 신농에 관한 유적이 많은데 예를 들어, 호북성(湖北省)에 있는 한 지명(地名)을 “신농가(神農架)”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호남성(湖南省) 영현에는 신농묘(神農廟;사당)와 신농묘(神農墓;무덤) 등이 있다. 최근 차사(茶史) 연구 과정에서 고증을 통한 중국의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신농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후세들이 농업발명자의 공적을 숭상하여 형상화한 우상이기 때문에 차의 발견은 전체 신농시대의 역사적 활동으로, 모계씨족사회(母系氏族社會) 말기부터 부계씨족사회(父系氏族社會) 말기에 고대 선민들이 차를 발견하고 이용했으며, 지금으로부터 6, 7천년 심지어 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연자원이 결핍한 상황 아래 인공(人工)으로 재배 했으며, 동진·상거(東晉·常璩)의 <화양국지·파지(華陽國志·巴志;기원 347년 혹은 조금 뒤에 완성됨)>에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공격하려 하니... 누에, 삼, 노끈, 물고기, 소금, 동, 철, 주사, 옷나무, 차, 꿀... 등을 모두 공물로 바칠지어다....뜰에 부들, 고급 차가 있는...”주(周) 무왕(武王)의 토벌은 기원전 1066년에 있었으며, 파국(巴國;지금의 四川省 東部)에서는 이미 차나무를 인공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차를 주무왕에게 공물로 바쳤다. 그 뒤 주(周) 성왕(成王) 때에는 차를 이미 제사에 사용하였다. <상서·고명(尙書·顧命)>에 “왕삼숙(王三宿), 삼제(三祭), 삼타(三詔)”가 기재되어 있는데 “삼타(三詔)”란 즉 “삼차(三茶)”이다. 한대(漢代)에 엮어진 동·식물사전 <이아(爾雅)>에는 1000여종이 넘는 동식물 이름과 약 600종의 동식물의 성질과 형상에 대하여 기록한 사전으로서 석목편(釋木篇)에 “가(檟jia), 고도(苦荼)” 항목이 있는데, 당시 차는 이미 인류생활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한 차의 실천은 더해져서 천천히 차가 인체에 약리작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한(西漢) 경제(景帝;기원전 157~142년)때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집필한 <범장편(凡將篇)>에 20여 가지 약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천타(荈詒차)” 포함되어 있다. 동한(東漢;기원 25~220년) 화타(華陀)의 <식경(食經)>에 “고차구식(苦茶久食), 익의사(益意思) ; 차를 오래 먹으면 생각하는 것에 이롭다”라는 차의 효능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 차 생산지 현의 지명을 “도릉(茶陵;지금의 湖南 茶陵)”으로 달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장사(長沙) 한묘(漢墓)에서는 “도릉(茶陵)”이라는 석제 관청 도장이 출토 되었으며, 장사 마왕퇴(馬王堆)한묘(漢墓)에서는 찻잎 한 상자를 순장했다는 기록이 있는 죽간(竹簡)과 목패(木牌)가 출토되었다. 서한(西漢)때 왕포(王褒)가 지은 동약(僮約;기원전 59년 노비매매문서)에 그의 종이 마땅히 해야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적어 놓은 책으로 그 중에서 차와 관련된 대목에 대하여 “무양(武陽)에서 차 사오는 것과, 차 끓이는 기구를 깨끗이 씻어 놓는 것”이다. 여기서 무양이란 사천성(四川省) 미주의 팽산현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차는 한대(漢代)에 이미 귀족계층의 부와 사치생활의 구성부분으로 되었다. 차의 이용을 보면 최초에는 신선한 잎을 따서 그대로 먹었는데 운남(雲南) 기낙족(基諾族)은 지금도 차 무침을 먹고 있으며, 호남(湖南) 도원(桃源)에서는 “삼생탕(三生湯;생차엽, 생강, 생쌀을 갈아 만든 차;되차擂茶)”를 마시고 있다. 이후에, 건조하여 보관하거나 “절인차(엄차腌茶)”를 생산했으며, 운남 경파족(景頗族)은 아직도 이렇게 먹는다고 한다. 차 가공(加工)의 최초 문자기록은 삼국·위조(三國·魏朝;기원전 220~265년) 장읍(張揖)의 <광아(廣雅)>중에 “형주(荊州)와 파주(巴州) 일대에서는 찻잎을 따서 떡(餅)을 만드는데 잎이 짙어지면(쇠하면) 쌀을 개어서 굳혀 만들어 낸다.”고 써어 있으며, 마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하였다. 먼저 불에 구워낸 후 찢어서 자기에 담아 두고 끓는 물을 붓고 파, 생강 등을 넣어 국을 만든다. 차로 술을 대신하는 습관은 <삼국·오지·위요전(三國·吳志·韋曜傳)>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오나라 말대 황제 손호(孫皓)가 연회석에서 주량이 낮은 신하 위요(韋曜)를 특별히 우대하여 차를 마시게 했다고 한다. 차는 인류에게 먼저 물질의 형식으로 나타나 그 실용 가치로 인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일정한 단계로 발전하여 심오한 정신적 내포를 주입하게 되었으며, 기타 인문학에 침투하여 여러 가지 문화현상과 사회기능으로 나타나 비로소 차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 남진(南晉), 남북조(南北朝) 차문화의 맹아기(萌芽期)

한대(漢代)때까지는 근검절약을 숭상했으나 양진(兩晉), 남북조(南北朝)때는 사회 풍기가 크게 변하여 일반관리와 선비들도 부귀를 미로, 사치를 영광으로 여겼다. 유지 인사들이 “청렴(清廉)”을 함양할 것을 건의 하였으며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진중흥서(晉中興書)>, <진서(晉書)>에 육납(陸納), 환온(桓溫)이 차와 과일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소박한 풍모를 엿볼 수 있고, <남제서(南齊書)>에 남세조(南世祖) 무

황제(武皇帝)가 쓴 유서에서는 당시 귀족들이 장례와 제사를 너무 사치하게 치르는 낭비현상을 개혁하기 위해 가축을 제사에 쓰지 말고 차나 과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런 것들은 삼국시대 손호가 술 대신 차를 마신 것과는 본질적인 구별이 있다. 차를 마시며 청렴을 함양하고 차를 마시는 것은 정신적 내포를 보유하고 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삼국시기에는 주요하게 궁정과 명문 귀족들 사이에서만 유행하였으나 양진시기에 이르러 청렴 기풍의 성행과 함께 일부 문인들은 혼잡한 세상일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청산녹수 속을 노닐면서 탁상공론을 펼치고 술로 흥을 돋구었으나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는 한편 술을 과음해서 추태를 보이는 폐단이 있으므로 차츰 술을 차로 바꾸었다. 문인들이 차 마시기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차에 관한 시가 나타났으며 육우의 <다경·칠지사>에서 열거한 시 다섯편은 모두 양진, 남북조시기에 쓴 것이다. 그중 좌사(左思)가 쓴 <교녀시(嬌女詩)>의 마지막 두 구절 “차에 마음이 간절하여 술에 입김을 분다”는 두 여자가 급히 차를 마시려는 마음에 입으로 화로를 불면서 차를 끓이는 정경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다. 장재(張載)의 <등성도루(登成都樓)> 시에서는 “차는 여섯가지 간단한 음료에서도 첫 손 꼽히며, 향기가 9개 지역에까지 퍼진다.”라는 두 구절로 차는 음료 중의 제일이며, 필연코 전 중국에 전파되리라는 앞날을 그려보고 있다.

양진, 남북조시기, 종교는 도가(道家)가 주도적 지위에 있었고, 진후기(晉後期)에 불교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남북조시기 “열반경(涅槃經)”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절강(浙江)에서 차를 심기 시작한 것도 도교와 관련 된다고 한다. <임해현지(臨海縣志)>에서 포박자(抱朴子)의 <원명(園茗)>을 인용할 때 “개죽산(蓋竹山)에 신선한 다원이 있는데 갈현(葛玄)이 여기서 차를 심는다고 하느니라.”라고 했다고 전한다. 갈현이 천태산(天台山)에 올라 첫 도교 사원을 창건했으며 천태산 주봉 화정(華頂)에서 차를 심었는데 바로 현재에 있는 “갈선다원(葛仙茶園)” 유적지 이다. <속명승전(續名僧傳)>에 따르면 법요(法瑤)스님은 차를 즐겨 마셨기 때문에 구십구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육우의 다경 중에 열거한 <수신기(搜神記)>, <속수신기(續搜神記)>, <광릉기로전(廣陵耆老傳)> 등은 모두 이 시기 차를 마시고 신선이 된 이야기들이다. 이런 기록들에서 알 수 있듯이 차를 마시는 것은 이미 신선이 된 도사, 참선하여 도를 터득한 승려, 신불에 받치는 공물로도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차를 마시는 것은 이미 종교 영역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 마시는 풍습을 일어나게 하였다.

○ 당조(唐朝) 차문화 형성기(形成期)

당대는 국가가 통일되고 국력이 강성하였으며, 남북교통이 연결되고 경제가 번창하고, 무역이 발전하여 중외 왕래가 빈번하였으며, 중국 문화사상 가장 휘황찬란한 시대였다. 이런 것들은 차문화의 형성에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여 주었고, 역대 많은 차인들의 노력으로 차문화는 점차 독립적이고 완벽한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육우의 다경 편집은 차문화 형성의 표징으로 되었다. 육우는 당조 중기의 저명한 학자이며 세계 차학계의 창시자로서 <다성(茶聖)>, <다신(茶神)>, <다선(茶仙)>으로 불린다. <다경> 외에도 근 20여종에 달하는 저작이 있는데 <다경>은 3권 10절로 나뉘어져 있고, 내용은 차나무의 성질과 형상, 채집방법, 차 끓이기와 음다기구, 차생산지와 당조 이전의 차이야기 등을 다루었다. 고로 당조 중기 이전 차와 관련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내용을 개괄하였고, 특히 차 마시기 예술을 연구 토론하여 당대문인들이 차를 연구하는 모범이 되었으며 유가, 도가, 불가 3교 사상을 차마시는 과정에 융합하여 중국의 다도정신을 수립하였고, “검(儉)”을 핵심으로 하여 세계 차생산과 차문화 발전을 이어나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육우의 뒤를 이어 많은 서적들이 나왔는데 그 중 차와 관련된 시에는 133명이 391수를 쓴 것으로 통계 되었으며, 그 중 유명한 시인으로 이백(李白), 두보(杜甫), 피일휴(皮日休) 등이 있다. 이들은 다예(茶藝)와 다도사상을 진일보 발전시켰으며, 중국 차문화 중 천(天), 지(地), 인(人)의 관계를 나타내어 차 마시는 습관의 보급을 추진하였고, 다도구 생산을 선도하였으며, 차문화의 내포를 풍부히 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 차문화의 형성은 선학의 흥성과 관련된다. 수당시기(隋唐時期) 천태(天台), 화엄(華嚴), 선종(禪宗)은 모두 불교의 한화(한화)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천태종은 수나라때 창건되어 당조에 성행하였으며, 창시자 지자(智者)는 절강 천태산에서 참선하고 지관양법(止觀兩法)을 모두 중시하는 종교 수양원칙을 주장하였다. 후에 사원주위에 차를 심어 만들어 마셨다. 사원에는 “다예(茶禮)”가 있고, “차당(茶堂)”을 설립하였으며, “차두(茶頭)”를 파견하여 차에 관련한 활동을 책임지게 하였다. 일본 스님이 기원 804년에 절강 천태산에 올라 국청사(國淸寺) 천태종(天台宗) 제7대조 도수(道邃)와 진각사(眞覺寺) 천태종 스님 행만(行滿; 다두로 있었음)에게서 천태종교의를 공부하였으며, 동시에 사원 차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 전파하였다. 선종6조 혜능(慧能; 기원 638~713년)은 불성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힘을 다했으며, 불교의 경전을 전이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교의 참뜻을 깨달음으로 전향 인도하게 하였다. 선종의 세속

화(世俗化), 간단화(簡單化), 속성화(速成化)로 인해 중국 사대부와 평민백성들이 광범위하게 받아 들였으며, 중국인의 일상생활, 습관, 문화 등 각 방면에 중대한 영향을 일으켰다. “다선일미(茶禪一味)”가 바로 이러한 영향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성당(盛唐)에 이르기까지 몇백년의 유·불·도의 항쟁의 국면이 결속되고 3교가 차츰 합류되기 시작했으며, 사원에서 이미 차 마시는 예의는 규범화 되었고, 특히 백장회해선사(百丈懷海禪師)는 “백장청규(百丈淸規)”를 제정하였는데 선림청규(禪林淸規)와 차의(茶依)가 사원 다례(茶禮)로 되었다. 이는 후세에도 전해졌을 뿐 아니라 멀리 해외에도 전파되었다. “다선일미(茶禪一味)”는 차 마시기 풍습의 흥행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음다(飲茶)의 정신적 내포를 풍부히 하였다. 당조 차문화의 형성은 조정의 제창과 관련된다. 조정회시때 시험장에 다과를 보내곤 하였는데 그들의 정신을 맑게 하는 한편 황제의 고무와 혜택을 암시하고, 선비들이 차를 마시고 과거를 잘 볼 수 있게 하였다. 서울 장안에서 술을 끊고 식량을 절약할 때면 술을 즐기던 사람들도 차를 마셨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다세(茶稅)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실물세 즉 차를 공물로 받았으며 관청에서 세운 공물 다원도 있었는데 현지 자사(刺史: 漢,唐시대의 주장관)가 그 생산을 관리감독 하였다고 한다. 대력(大歷) 5년(기원 770년) 장흥(長興) 고저산(顧渚山)에는 공물 다원이 30여 칸 있었으며 정원(貞元) 17년(기원 800년)에는 절을 지어 동쪽 행랑 30칸을 공물 다원으로 하고, 양쪽에 디딜방아를 설치해 놓았으며, 찻잎 말리는 방이 백여 곳 있었고, 공인이 천여명 있었다. 현재 고저산에 보존되어 있는 마애석각(磨崖石刻)은 당대 공물로 바치던 다원의 중요한 증거로 되고 있다. 궁정다도가 형성되고 궁정에서 갈수록 차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다세는 조정의 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되어 차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당대 육우의 다경은 이미 중국 차문화 학계의 완벽한 체계를 이루었으며, 중국 차문화의 성과적인 다도로 일정한 내포를 가지고 있으며 차는 물질적인 실용으로부터 정신적 문명으로 전화되었다. 때문에 당대 차문화의 형성시기라고 한다.

○ 송조(宋朝) 차문화의 확대기

(1) 면모 일신한 궁정다도

송대(宋代), 제1대 황제 조광윤(趙匡胤)은 차를 무척 즐기는 사람이었으며, 황제에 오른 후 공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른 봄에 새 차를 맛보기 위해 주요 공차 지점을 의흥(宜興), 장흥(長興)으로부터 복건성(福建省) 건안(建安)으로 옮기고 “북원공차(北苑貢茶)”라 불렀다. 기원 977년 송태종은 자신의 존엄과 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용봉모양으로 만들도록 명을 내렸다. 정위(丁謂)가 복건(福建)에서 전운사직(轉運使職)을 맡고 있을 때(998~1003년)는 해마다 접수 받는 공물이 40병(5근)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경력년간(慶曆年間; 기원1041~1048년) 채양(蔡襄)이 복건 전운사로 있을 때는 아주 어린 찻잎을 채집하여 큰 덩이를 작게 나누어 20병 혹은 28병을 1근으로 하였는데, 작은 덩이는 宋仁宗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대신들도 작은 덩이를 상으로 받으면 큰 영광으로 알았다. 기록에 의하면 인종이 중서추밀양원(中書樞密兩院)의 8인에게 한 병을 하사 하였으며, 궁중 사람들은 금종이로 용봉(龍鳳)을 오려 위에 부쳤으며, 대신들은 상으로 받은 후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감상하게 하였다. 그 뒤로 또 밀운용단(密雲龍團)을 만들었다. 차의 원료가 어리고, 가늘기 때문에 차를 마실 때에는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밀흑유잔(建密黑釉盞)에 “점다법(點茶法)”을 사용하였는데 차를 폼핑하기에 가장 뛰어났다. 송희종(宋徽宗)은 자기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여 대관다론(大觀茶論)을 썼는데 송대(宋代) 점다법(點茶法)의 규범이 되었다. 흑유(黑釉)중의 정품이 일본에 전해진 후 여러 가지 요변의 천목(天目)이 만들어져 일본의 국보로 되었다고 한다. 송대 차의식은 이미 궁중의 예(禮)로 되어 차를 하사 할 때도 성대한 의식이 있었는데, 충신 외에 외국 사절에게도 차를 하사 하였으며, 외출하여 유람하거나 시찰 할 때도 차를 하사하였다. 큰 연회를 베풀 때나 꽃을 감상할 때, 시를 읊거나, 노래, 춤, 고화(古畵) 감상 등과 결합하기도 하였다. 또한 궁정에는 전문적인 관리기구로 태부사다고(太府寺茶庫) 등이 설립 되었다.

(2) 시민 차문화의 흥기

송대 때에는 도시 상업무역이 번성하였고, 야시장이 삼경까지 지속되었으며, 각종 서비스 업종이 나타났고, 다방(茶坊: 茶樓, 茶肆 라고도 함)이 연이어 세워졌다. 장택단(張擇端)의 “청명상하도(清明上下圖)”에는 변화한 변경(汴京: 오늘의 개봉) 시가지를 그리고 있으며 다방도 찾아볼 수 있다. 다방은 장식이 우아할 뿐만 아니라 꽃, 그림

으로 단장 하였으며 판소리, 연극 등 곡예 활동과도 결합시켜 시민들이 차를 맛보고 오락하며 친구를 만나고 상담하는 등의 활동장소로 되어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시민문화는 주요하게 차를 마시는 것을 사교적 수단으로 서로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누고 우의를 증진하며 화목하게 대하는 등의 각종 차 풍속으로 점차 형성되었다. 변경에서 이사를 하면 이웃들이 서로 “헌다(獻茶: 차 선물)”하며 강남(江南)에 서는 설을 설 때 “원보차(元寶茶)”를 마시며, 혼례풍속 중에도 “삼차례(三茶禮)”가 있는데 약혼시 “하차(下茶)”, 결혼시 “定茶(정차)”, 혼례 첫날밤의 “합차(合茶)” 등이 있다. 송왕조는 공차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졌으며 건안에서는 차 겨루기 형식의 투다(鬪茶) 기풍이 일어났으며 제조자로부터 차 상인에 이르기까지 민간 차 겨루기가 일어난 후 이런 기회로 문인아사, 황제, 대신 모두가 품위로워 지고 채집하여 만들기 까지 차 끓이기, 점다기에 등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3) 다도문화의 연구를 중시하는 문인

문인 중에는 다도문화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가하면 소식(蘇軾)의 <엽가전(葉嘉傳)>과 같은 차를 의인화하는 작품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비밀을 연구하고 생산과정 중에 찾아낸 품질의 각 부분에 있어서나, 생산수준 면에서도 부단히 높아져 당 오대에는 다서가 10부 밖에 안 되었는데 송대에는 26부에 달했으며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조길(趙佶)의 <대관다론(大觀茶論)> 중의 점다 과정이 후에는 문인들이 따르는 다도순서가 되었다. 품다시 차의 향과 맛, 차를 우리는 동작의 아름다운 조화까지 더욱 중요시 하게 되었다. 一人, 三五人, 十餘人 혹은 개인, 가정, 동료들이 우의 좋게 품다(品茶), 투다(鬪茶), 분다(分茶)는 이미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두 방면에 연구 보급되어 차에 관한 과학기술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4) 다도활동이 더욱 완벽해 가는 사원

절강(浙江) 천태(天台) 고승(高僧) 덕소(德韶)는 기원 960년에 천태 폭포령(瀑布嶺)에 경복원(景福院)을 건축하고 차를 만들어 사원을 넓히고 불법을 널리 전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석량방광사(石梁方廣寺) 스님이 매일 차로 나한(羅漢)을 공대하자 “영이(靈異: 신령)”가 나타났는데 일승(日僧) 성심(成尋)과 영서(榮西)가 모두 “나한공차(羅漢貢茶)”하는 영이(신령)를 직접 보았다고 한다. 후에 일승 도원(道元)이 이 의식을 일본 영평사(永平寺)에 전파시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송황제는 절강(浙江) 여항(余杭) 경산사(經山寺)에서 큰 다례를 베푸는 것으로 일승 영서를 표창했

다. 일승 원이변이(園尔辯尔)는 경산사에서 2년 동안 불교에 전념하다가 “선원청규(禪苑淸規)”를 가지고 갔고, 일승 남포소명(南浦紹明)은 송나라에 9년 동안 머물면서 경산 허당선사(虛堂禪師)를 스승으로 모시다가 귀국할 때 태자(台子: 천태차종자)와 다전(茶典) 7부를 가지고 갔는데 그중 유원보장로(劉元甫長老)가 저술한 “다당청규(茶堂淸規)”에는 중국 선원다도(禪院茶道)의 참된 도리를 “화경청적(和敬淸寂)”이라고 언급 되었는데 다도정신에 대한 이 표현이 중국 송나라 때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요(遼), 금(金), 원조(元朝)의 차문화

요나라는 907년 건국되어 1125년에 멸망하였다. 북송과 같은 시기이다. 금나라는 1115년에 건국되어 1234년에 멸망하였다. 원나라는 1206년에 건국되어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키고 1368년에 멸망하였다. 이 세나라는 모두 북방에 존재하였던 나라로 송나라와 서로 맞섰다. 이기간의 교왕 중에서 한족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 요나라의 차문화

요나라는 조정에 사신이 왔을 때 “행다(行茶)”의 조정의식을 아주 중요시 하였다. 사신 맞이 의식에 관한 기록을 송사(宋史)보다 요사(遼史)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송나라의 사신이 요나라에 들어오면 먼저 삼배의식 후 주인과 손님이 앉으면 차물을 끓여 차를 낸다. 송의 사신이 요나라의 황제를 접견할 때 궁정에서는 술을 3번 돌린 후 차를 내었으며, 그 후에 다시 식사와 요리가 나왔다. 요 조정 내부의 예의, 다례는 아주 많았다. 황태후 생신때 참배 후 병차를 내었고, 만찬이 있을시에도 또한 차를 내었다. 거란족(契丹族)은 태양을 숭상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차를 존귀한 태양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2) 금나라의 차문화

남송과 금이 대립할 때 여진족(女眞族)은 송나라의 음다 예의, 풍속 등의 영향을 받았다. 여진족은 또한 하(夏)나라의 강족(羌族)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북방에 존재하던 이 세나라는 다예(다예)가 크게 유행하였다. 금나라의 여진족은 조정에서의 행다례(行茶禮)가 점차 민간에서도 유행하였다. 여진족의 혼례 의식 중 차를 중요시 하여 남녀가 약혼시 남자 쪽에서 먼저 여자 쪽을 방문하는데 이것은 북방민족의 모계

씨족제도의 유풍이다. 이때 여자 쪽에서는 온돌에 올라 앉아 남자 쪽의 큰절을 받는데 이것을 “하차례(下茶禮)”라 부른다.

(3) 원나라의 차문화

원대 몽고인(蒙古人)이 중원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다. 유목민족의 거칠고 호쾌한 성격과 육식의 생활습관으로 정교하고 우아한 다예(茶藝), 다도(茶道)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원나라를 건립한 후 몽고인은 차잎을 직접 마시는 산차(散茶)가 크게 유행하였다. 원대 음다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 ① 명차(茗茶) : 음다방법은 이미 근대 포법(泡法)과 비슷하였다. 먼저 어린 차싹을 따서 풀냄새(靑氣)를 없앤 후 끓여 마신다.
- ② 말차차(末子茶) : 생차잎을 채취한 후 먼저 차잎을 건조한다. 이 차잎을 가늘게 간다. 이것을 병차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저장한다. 이런 종류의 차는 점다용으로 지금의 말차와 비슷하다.
- ③ 모차(毛茶) : 모차는 차속에 호도, 잣, 깨소금, 은행, 밤 등을 넣고 같이 먹는다. 이것은 차를 마시고, 견과류는 씹어서 먹는 것으로서 차 본연의 맛은 사라지지만 차의 맛과 견과류 등을 직접 먹을 수 있어 민간에서는 꽤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오늘날 중국 호남, 호북 등지에서 차에 과일, 완두콩, 뽕튀기, 북방에서는 대추 등을 첨가하여 차를 마시는 것은 원대 모차의 유풍이다. 원대때 차에 이런 것들을 첨가하여 손님에 왔을 때 접대 하였는데 이것을 청천백석차(淸泉白石茶)라고 부른다.
- ④ 랍차(臘茶) : 랍차는 단차(團茶) 라고도 한다. 당시 수량이 이미 줄어 대부분 오직 궁정에서나 얻어 마실 수 있었다.
요, 금, 원 3조의 차의 영향은 정신적인 차문화의 영향보다 주로 음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명조(明朝) 차문화

원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후 문화정책상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송을 계승한 원·명대 차문화를 계승한 기초상에 있어 또한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명대 차문화에 새로운 특징이 몇가지 발생하였다. 첫 번째 당시에 산차를 우려마시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명을 세운 태조 주원장(太祖 朱元璋)은 출신신분이 낮은 하층민으로서 민간인들의 고충

을 잘 이해하여 궁에 공납하던 단병차(團餅茶)를 홍무(洪武) 24년 구월십육일(1391년 10월 14일) 용단차(龍團茶)를 아차(芽茶)로 개조하라고 명하였다(太祖實錄 卷 121). 이로써 단병차의 전통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아울러 아차(芽茶)와 엽차(葉茶)의 왕성한 발전을 가져왔다. 두번째, 명조 음다방법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구 또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기후, 도자다구에 차를 우려 마시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새로운 자사다구(紫砂茶具)가 만들어 졌으며 특히 문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세 번째, 문인들의 음다에 있어 자연과 의기투합된 음다 환경에서 보다 높은 것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과 같지 않은 류풍의 깨끗한 절개와 우아하고 모범적인 것을 더 중시하였다. 명조는 또한 차의 종류와 음다방식, 기술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오룡차, 홍차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산차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차를 우려는 방법에서도 포법이 유행하였다. 다원관리 및 채다방법에서도 발전을 가져 왔으며, 제다 기술에서도 초청(炒靑)에서 점차 증청(蒸靑) 방법으로의 발전이 있었다.

○ 청대(清代) 차문화

청조는 전통차문화의 결말과 동시에 현대 차문화의 시작이다. 문인차문화 및 다서, 시 등 많은 방면에서 볼 때 큰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전대(前代)성과의 총결(總結)과 보충이다. 청대 차문화와 관련된 소설중 가장 대표적인 세작품 이여진(李汝珍)의 경화연(鏡花緣), 오경재(吳敬梓)의 유림외사(儒林外史), 조설근(曹雪芹)의 홍루몽(紅樓夢)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홍루몽은 청대 차문화 연구와 관련하여 오늘날 많은 다인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 당대(當代) 차문화의 새로운 발전기

- (1) 1982년 9월 저명한 차학계 장만방(庄晚芳) 교수의 건의와 협조하에 중국차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것을 중지로 하는 새 중국의 첫 사회단체 “다인지가(茶人之家)”가 항주(杭州) 서자호반(西子湖畔)에서 성립되었고, 동시에 “다인지가” 잡지를 창간(후에 “茶博覽”으로 바뀌었음)하였다. 그 후 복건성(福建省)의 하문(廈門), 복주(福州)에도 “다인지가”가 성립되었다.

- (2) 1983년과 1993년에 각기 육우의 탄생지인 호북(湖北) 천문현(天門縣)과 제2의 고향 호주(湖州)에서 “육우차문화연구회(陸羽茶文化研究會)”가 성립되고, 연구문집을 출판하였다
- (3) 1990년 8월에 북경에서 “중화차인연의회(中華茶人聯誼會)”가 성립되었다.
- (4) 1993년에 호주에서 “중국국제차문화연구회(中國國際茶文化研究會)” 성립을 선포하였다. 각급 다엽학회에서도 차의 인문과학을 토론 연구하는 단체로 전이하였다.
- (5) 1986년 항주에 “중국다엽박물관(中國茶葉博物館)”을 세워, 1991년 4월 정식 개관하였다. 차역사, 차모임, 차와 관련된 일, 다구, 차풍속 등 5개 전시대를 설치하였고, 후에 또 중국국제평화문화교류회관을 설립하였다. 중국 간부와 외국 인사, 국내 인민 등을 접대; 실물로 전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차문화의 귀중한 유산을 수집 정리 하는데 노력하여 애국주의 교육기지와 국제교류의 창이 되었다.
- (6) 차문화 지식을 전수하는 것과 젊은 다인 배양 중시; 다인들은 차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국내외 차문화교류, 교육, 인재배양 등을 전개하고, 각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큰 자문활동과 다예표연을 진행 하였다. “어린이 다예교육”, “어린이 다예표연”을 진행하고, 각지 다예관에 차문화 지식을 전파할 뿐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차인의 헌신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의 음료사업을 발전시켜 21세기에 차는 세계 음료의 대오에 들어서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더욱 큰 공헌을 하리라 본다.
- (7) 중국차문화는 일정한 사회조건 하에서 나타났고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총결하고 발전시킨 과학이다. 때문에 중개성, 다층성, 민족성, 지역성과 전승성 등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 다도예술, 다도사상, 차의 예의, 차의 풍속, 차문학, 차예술 등은 모두가 중국차문화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차문화는 중국전통문화의 신기한 꽃이며 세계차문화의 발전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었다. 지금 중국차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 시기의 사회조건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수요에 맞춰 전통문화의 결정을 섭취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차를 교량으로 삼아 외국의 선진문화를 섭취하여 중국차문화의 한 떨기 찬란한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었다.